

울산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물 준공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울산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물을 6월5일 준공해 입주한다고 발표했다.

울산 친환경청정기술센터는 울산시 중구 다운동 울산테크노파크 안에 243억원을 들여 2010년 3월 착공했고, 연면적 8000㎡의 연구동과 실험동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가로등, 태양열 냉난방시스템, 지열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울산시의 국가출연연구소 유치로 2008년 말 울산테크노파크에 처음 입주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현재 40여명의 근무인원을 2016년 70여명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센터는 건물 준공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과 제조현장의 녹색화 기술개발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울산 친환경청정기술센터가 2011년에만 287억원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울산지역 154개사에 기술을 지원해 총 374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만1000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2/06/05>